



지난해 12월 17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이 광주시가지를 어머니의 품처럼 안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5기들어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역점시책으로 추진, 2년여만에 성공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권한 이양 안돼” 상당수 반대했지만 설득 또 설득...광주시장 집념의 결실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⑤ 험난했던 승격 과정·주역

담당공무원 먹살 잡히는 일 비밀비재
현장설명회·공청회 열어 수십번 설득
역사 지원·천연기념물 서식 장점 제시
추진 2년만에 작년말 '만장일치' 통과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일지

1972. 5. 22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
2010. 12. 24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
2011. 11. 10 ~ 2012. 6. 30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2012. 3. 9	국립공원 추진상황 설명회
2012. 4~5월	지역주민 좌담회 20회 개최
2012. 6. 20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2012. 8. 16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 주민의견 제출
2012. 8. 27	관할 시도지사 의견청취·광주시 의견제출
2012. 11. 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산림청)
2012. 12. 5	국립공원위 현장방문
2012. 12.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해양부)
2012. 12. 27	국립공원위 무등산 승인

2012년 12월 27일 무등산은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이 됐다. 지난 1988년 월출산·변산반도 이후 24년 만이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12월 정부에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으나, 꼭 2년 만에 거둔 성과물이다. 무등산보호단체인협의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과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상당수 광주시민도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되면 손해? = 1972년 5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거론된 것은 2000년부터다. 당시 무등산보호단체인협의회(무보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승격 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물론 인근 자치단체들도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는 부정적이었다.

중앙정부 무등산의 관리 권한이 넘어가면 광주시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광주시민 사이에도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국립공원이 되면 등산 등 접근권은 물론 재산권도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무등산 보호에 헌신해온 박선홍(88) 무보협 고문은 “(국립공원 승격 운동을 하던) 2000년 당시 한 공무원이 찾아와 (국립공원이 되면) 무등산을 옆에 두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며 험한 수모를 줬다”고 말했다. 이후 국립공원 승격 얘기는 일부 시민단체와 산악인들을 중심으로만 맴돌았을 뿐 공론화되지 못했다.

◇민선5기 역점시책 선정 큰 힘 =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운동은 10년만인 2010년 6월 재점화됐다. 당시 민선 5기 선거에서 당선된 강운태 시장은 인수위 과정에서 산악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립공원 승격에 앞장섰

다. 역대 광주시장 중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도립공원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데 왜 국가에 주려 하느냐”며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타났다. 강 시장은 “지방문화재를 국보로 승격시키는 일”이라며 이들을 설득했다. 반대시민을 설득하고 나니 이번엔 환경부(중앙정부)가 문제였다. ‘수십 년 전에 끝난 제도인데 왜 이제 와서 국립공원 얘기를 꺼내느냐’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강 시장은 특유의 폭식으로 환경부 설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첫번째가 무등산의 생태자원 조사였다. 기대했던 대로 전국 20개 국립공원 보다 희귀한 동식물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환경부에선 또다시 공원의 규모가 너무 작다고 트집을 잡았다. 강 시장은 두번째 프로젝트로 광주시는 물론 무등산과 접해있는 전남 화순과 담양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시켜 환경부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물론 이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당시 화순과 담양지역 주민들도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일부 광주시민이 국립공원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 등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다. 광주시의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먹살을 잡히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다시 한 번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열고, 반대하는 주민은 수십 번씩 만나 설득했다. 광주시의 진심이 국립공원 지정을 강력반대했던 무등산 인근 주민들 사이에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을 보호하자’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오히려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국립공원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린벨트로 묶어있는 것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게 토지 이용 면에서 유리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회의적 반응 보인 중앙정부도 설득 =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이후에도 갑자기 꺼여온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비우호적 태도와 싸워야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립공원 구역 라인이 들쭉날쭉하다며 결정을 미뤘고, 반대주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두 번째 심사도 유보 조치를 내렸다. 다행히 세 번째 위원회 때 위원회의에 직접 참여한 반대투쟁위원회가 극적으로 반대를 철회하면서 통과됐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만큼은 별다른 제약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또 한번 미뤄지면서 일부에선 ‘국립공원 무산설’마저도 흘러나왔다. 국립공원위원회가 반대한 국립공원 면적을 심의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연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가 당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의 대표 명산인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등에서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안이 통과됐다.

/박진표기자 jucke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한희원 작 '저녁중' Oil on Canvas(116.7 x 72.7cm)

“김현승 시인은 양림교회가 서 있는 양림언덕을 오르며 많은 시를 남겼다. 뒤로는 너럭한 무등산이 버티고 선 곳이다. 나도 어린 시절 양림언덕을 오르면서 예술가의 꿈을 키웠다. 늦가을 저녁 무등산과 양림언덕을 고즈넉하고 사색적으로 그렸다.”



나와 무등산 박현주 광주 중앙한의의원 원장

새인봉 오르며 에베레스트 등정 꿈 키워



박현주(왼쪽)씨가 전남대산악회 동기들과 1990년 여름 무등산 새인봉에서 암벽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무등산은 새인봉이었다. 전남대 산악회 1학년 신입생 첫산행인 새인봉 암벽 등반에서 나는 인생의 계곡을 맞보았다. 2 시간여동안 매달린 절벽에서 청춘기의 방황은 종료됐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주말마다 새인봉 암벽을 오르며 알파니스트의 꿈을 키웠고 자연스레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인생 최대목표로 설정했다.

해마다 봄철이면 무등산 크로스컨트리대회에 출전하며 체력을 단련했다. 증심사에서 새인봉삼거리~중머리재~장불재~규봉암~교막재~산장까지 무등산풀코스를 10kg의 배낭을 메고 달렸다.

또 새인봉과 의상봉 선비바위 그 수직의 절벽을 등반하며 히말라야 빙벽과 암설벽을 오를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며 8천미터의 꿈을 다졌다. 무등산은 나에게 젊음의 좌표를 제시해주었고 목표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게 했으며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천혜의 훈련장소를 제공했다. 92년 천산산맥 칸헝그리(7,010m) 한국초등, 97년 세계

6위봉 초오유(8,201m)를 올랐지만 그토록 갈망했던 에베레스트는 쉽게 정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93년과 96년 원정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한 뒤 2000년 다시금 기회가 찾아왔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직장에서 퇴근 후 저녁마다 무등산으로 향했다. 산장에서 출발해 동화사터~중봉까지 전력질주 하다보면 광주시까지 건너편으로 떨어지는 낙조가, 평화로운 광주의 야경이 동무가 되곤 했다.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새인봉에서 끈 꿈을 15년만에 달성한 뒤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새인봉이었다. 삶의 목표가 희미해지거나 선택의 기로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새인봉에 오른다. 산악인에서 신봉자자로 다시 한의사로 삶이 전환되는 시점에 무등산은 늘 나와 함께 했다.

새인봉은 나에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그곳에는 내 젊음의 금자탑이 서려있으며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있다.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